

| | | | | |
|------|--|------------------------|-----|-----------------|
| 파견기간 | 24-2 | 교환학생 귀국 보고서 | 학 번 | 2022-18370 |
| 파견국가 | 독일 | | 소 속 | 공과대학 전기정보공학부 |
| 파견대학 | Technical University of Darmstadt | | 성 명 | 정서영 |

아래 내용으로 본부 국외파견 교환학생 의무 사항인 수학 후기를 제출합니다.
서울대학교 국제협력본부에서 이를 OIA 홈페이지 게시 등 정보 공유 및 학생 안내,
홍보 등으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
| 제출일자 | 2025년 02월 28일 |
| 지원자* | 정서영 (정서영) |

(서명은 성함 타이핑으로 같음 가능하며, 수기로 수명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I. 교환 프로그램 참가 동기

교환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것은 대학에 입학하기 전부터 오랜 꿈이었습니다. 우리나라를 벗어나 먼 타지에서 혼자 살아보는 경험을 하고 싶었고, 여유를 가지고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하는 시간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사람들 속에서 잃어버렸던 학업에 대한 의지를 다지고 열정을 되찾고자 했습니다.

II. 파견대학 및 지역 소개

1. 파견대학/지역 선정 이유

저는 독일의 Technical University of Darmstadt(TU Darmstadt)를 선정했습니다. 먼저 독일을 선택한 이유는, 전기정보공학부에 재학중인 공대생으로서 유럽으로 교환을 생각했을 때 독일이 가장 많은 선택지를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직 유럽으로 교환을 가고자 했는데, 유럽의 파견교들 중 공학으로 유명한 정도와 지리적 위치, 그리고 물가를 고려했을 때 독일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인 것 같았습니다. 또 독일어를 배우고 싶다는 의지도 작용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TU Darmstadt를 선택한 이유는 교통의 요지인 프랑크푸르트 근처에 위치해 주변으로 이동하기 편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또 세계 최초의 전기과가 개설된 학교이기도 합니다.

2. 파견대학/지역 특징

다름슈타트는 프랑크푸르트 근처에 위치한 대학 도시입니다. 비교적 다른 지역에 비해 건물들이 그리 오래되지 않았고 거리도 깨끗합니다. 작은 도시 안에 대학이 세 개나 위치해 있어 학생들이 많이 거주하고, 다양한 인종이 모여 있습니다. Luisenplatz 라는 “시내”로 어디에 거주하던 몇 분~ 십 몇 분 안에 트램 혹은 버스로 갈 수 있어 편리합니다. 프랑크푸르트까지는 RE 혹은 s 반을 타냐에 따라 20분에서 40분 정도 걸립니다. 다름슈타트 중앙역에는 프랑크푸르트 암마인 공항으로 가는 직행 공항 버스가 있어 공항에 갈 때 유용합니다.

TU Darmstadt는 학생의 편의를 많이 봐주는 학교입니다. 같은 독일 내의 다른 공대들과는 다르게 안멜둥(거주지 등록)도 직접 잡지 않아도 되고 학교에서 일괄로 잡아주어 편하게 안멜둥 할 수 있었고, 메일로 입국 전부터 출국 전까지 해야 하는 일들을 정리해서 보내줍니다. 출국 전에도 안멜둥(거주지 등록 해제)을 해야 했는데, 다름슈타트에서는 직접 가지 않고 메일로 할 수 있어 편했습니다.

III. 출국 전 준비 사항

1. 비자 신청 절차

비자는 한국에서 미리 받아가는 방법과 독일에 가서 받는 방법이 있는데, 꼭 한국에서 받아가기를 추천합니다. 독일에서 비자 신청을 하면 비자 신청 후 비자가 발급되기 전까지 독일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비자를 신청할 때에는, 출국일이 다가올수록 비자 테어민을 잡기 힘들기 때문에 꼭 미리 잡으시길 바랍니다. 출국 2~3 개월 전에 하시면 조금 널널하실 것 같습니다. 비자 신청 절차는 검색해보시면 정리를 잘 해놓은 블로그가 많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국일에 가까이 테어민을 잡게 되신다면 상당히 높은 경쟁률 속에서 테어민 신청을 시도하시게 됩니다. 이때 오토필을 사용하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이것 역시 “독일 테어민 오토필” 등으로 검색해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테어민 성공을 기원합니다.

2. 숙소 지원 방법

때가 되면 파견교에서 숙소를 지원하라고 메일이 옵니다. 이때 가격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데, 200 유로에서 500 유로 이상까지 다양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혹시라도 기숙사에 떨어질 것을 대비해서 450 유로 이하를 선택했던 것 같은데, 비교적 월세가 높은 500 유로짜리 기숙사에 당첨되었습니다. TU Darmstadt 로 교환 온 다른 한국인 학생들을 살펴보았을 때 기숙사에 떨어졌다는 학생은 단 한 명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월세가 부담스럽다면 낮은 가격대를 선택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추가로 자유롭게 하고 싶은 말을 작성할 수 있는 칸이 있는데, 특정 기숙사를 언급하면 되도록이면 그 기숙사에 배정되도록 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에 기숙사별 특징을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기숙사는 크게 세가지, **Karlshof**, **Nieder**, **Berliner Alle** 로 나뉘는데, 저는 **Berliner Alle** 에 살았습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기숙사 옵션이 더 있을 수 있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저를 제외하고는 한국인 교환학생들 중 아무도 **Berliner Alle** 에 살지 않아서 의외였습니다. 기숙사들 중 유일하게 다름슈타트 중앙역에 걸어갈 수 있는 기숙사였고 보일러가 되었기 때문에 만족하면서 살았습니다. 정말 가끔 며칠씩 온수와 보일러가 끊길 때가 있습니다. 두세명이 한 플랫을 공유합니다. **Karlshof** 는 저 세 가지 기숙사 중 월세가 가장 저렴하고 (300 유로대였던 것 같습니다) 한국인 교환학생들이 가장 많이 배정되는 기숙사입니다. 또 파티가 자주 열립니다. 친구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한다면 **Karlshof** 를 추천합니다. 하지만 시내와 학교, 중앙역에서 조금 멀리 떨어진 편이고 파티가 자주 열리다 보니 새벽에 시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네 명 정도가 한 플랫을 공유합니다.

Nieder 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방 구조는 **Berliner Alle** 와 비슷한 편이고, 월세는 **Berliner Alle** 보다 조금 더 저렴했던 것 같습니다. 중앙역에서 조금 멀리 떨어진 편입니다. 세 가지 기숙사 중 가장 깨끗합니다.

3. 파견 대학 지불 비용(student fee, tuition fee, 기숙사 비용 등)

독일은 등록금을 따로 지불할 필요 없이 student fee 만 냈는데, 대략 200 유로 정도 낸 것 같습니다. Student fee 를 내면 한 학기 ICE(독일 고속 열차)를 제외한 모든 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Semester Ticket 을 주어 유용했습니다. 이것 역시 등록 방법을 메일로 친절하게 알려주니 따라하시면 됩니다.

기숙사 월세는 위 문항에서 설명했고, 월세에 추가로 TV/radio fee 를 내야 합니다. 기숙사에 TV와 라디오가 없는데도 내야 합니다. 저도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숙사에 함께 거주하는 플랫메이트와 상의하여 지불하시면 됩니다. 저는 저를 포함한 세명에서 6 개월 치를 더치페이했을 때 한 명당 55 유로 정도를 지불했습니다.

4. 기타 유용한 정보

기숙사에 입주하기 전에 방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는데, 이때 공용공간의 청소 상태와 방의 벽면, 물품들을 꼼꼼히 영상으로 남기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는 문제가 없었지만 가끔 기숙사를 퇴소할 때 트집을 잡아 보증금에서 일부를 제외하고 돌려준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IV. 학업

1. 수강신청 방법

TUCAN 이라는 수강신청 사이트에서 수강신청을 하게 되는데, 이때 모듈을 먼저 수강신청하고 강의를 수강신청 하는 등 한국과 수강신청 방법이 많이 다릅니다. 수강신청 방법에 대해 대학에서 메일을 보내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수강신청 할 과목을 찾는 과정에서 가장 크게 고려할 것이 언어일 텐데, 수강신청 사이트에서 강의별로 German/English 로 독일어 진행 강좌인지 영어 강좌인지 표시되어 있어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독일어 진행 강좌이더라도 영어 시험을 제공해 주는 교수님들도 있기 때문에, 듣고 싶은 과목이 German 이라고 표시되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메일을 보내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수강과목 설명 및 추천 강의

Operating Systems

운영체제의 기초 과목입니다. 운영체제의 전반적인 개념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독일어 진행 강좌였으나 PPT 강의자료가 영어였고 시험 역시 교환학생 전용으로 영어로 진행되는 구술시험을 제공해 주어 무리 없이 패스할 수 있었습니다. 구술시험의 경우 개념만 잘 이해하고 있다면 성적을 잘 주십니다. 서울대의 교환학생들이 이 수업을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교수님이 구술 시험이 끝난 후에 제 학교를 물어보시더니 서울대를 언급하셔서 놀랐습니다.

Digital Signal Processing

디지털 신호처리의 기초 과목입니다. “신호 및 시스템”과 “확률과정 및 확률변수의 기초” 강의에서 배운 내용들을 응용하는 심화 과목으로 느껴졌습니다. TU Darmstadt 에서 명강으로 유명합니다. 영어로 진행되는 강의였고 교수님이 정말 열정적으로 전달력 좋게 설명해 주십니다. 오픈북으로 무려 3 시간이나 진행되는 지필 시험이었는데, 이전 기출들을 전부 제공해 주시니 연습하시고 프린트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자기기를 제외한 모든 종이로 된 자료가 허용되었고, 시험 중 계산기가 필요했습니다.

Hardware Fundamentals of Neural Networks

논리 설계와 딥러닝에 사용되는 하드웨어 (CPU, GPU 등)에 관한 개념을 배웁니다. 영어 진행 강좌였고 구술 시험을 봤습니다.

독일어 수업으로는 A2 intensive course, B1 독일어 정규 강의, Discussing&Grammar 이렇게 세 개의 수업을 들었는데, 이는 4 번 외국어 습득 요령 문항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3. 학습 방법

시험이 구술 시험이냐 지필 시험이냐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구술 시험인 경우 개념을 영어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소개된 개념들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지필 시험은 개념을 응용하여 문제를 푸는 연습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 외국어 습득 요령

저는 이왕 독일에 온 김에 독일어를 열심히 공부하고자 했는데, 아직 독일어를 못하는 편이긴 하지만 처음 독일에 도착했을 때보다는 많이 늘어서 가는 것 같습니다. TU Darmstadt 는 학기 시작 한달 전에 독일어를 한달동안 월화수목금 수업에 나가 배우는 intensive course 를 제공합니다. 독일어를 배우고 싶다면 꼭 수강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때 수업을 등록하기 전에 Level test 를 보는데, 이는 독일어로 된 문단을 제공하고, 그 문단의 단어 중간중간에 빈칸을 뚫어 들어갈 철자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대부분이 그냥 빈칸으로 내 가장 낮은 A1 반에 들어가는데, 독일어에 욕심이 있으시다면 미리 독일어를 조금이라도 공부하여 intensive course 에 A2 반으로 들어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초급독일어 1 을 들은 수준이라면 열심히 시험을 보신다면 A2 반에 들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턱걸이로 겨우 A2 점수를 넘어 A2 intensive course 에 들어갔는데, 초반에는 같은 수업을 듣는 친구들에 비해 제 독일어 실력이 너무 떨어지고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도 (TU Darmstadt 의 독일어 수업은 모두 독일어로 진행됩니다) 제 이름밖에 알아듣지 못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따라가다 보니 수업이 끝날 때 즈음에는 결국 주변 친구들과 실력이 비슷해질 수 있었습니다. A2 intensive course 를 패스하면 정규학기 때 별도의 시험 없이 B1 강의를 수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조금 공부를 해서라도 A2 intensive course 를 수강하기를 추천하는 이유입니다. B1 강의를 수강하게 되면, 이 독일어 B1 강의 외에도 Discussing&Grammar 이라는 독일어 수업을 하나 더 들을 수 있습니다. 이는 문법을 배우고 독일어로 같은 반 수강생들끼리 대화를 나누는 수업입니다. Discussing&Grammar 은 B1, B2 수준의 학생들이 수강하기 때문에 갓 A2 를 마치고 온 저에게는 너무나도 어려운 수업이었습니다. 유창한 독일어 실력을 뽐내는 수강생들 사이에서 혼자서만 말을 잘 하지 못해 많이 주눅들었습니다.

그래도 억지로라도 독일어로 문장을 만들고 내뱉는 연습을 하는 과정에서 제 독일어 실력이 많이 발전했다고 느꼈습니다. 독일어 정규 수업 과정은 한 번의 시험으로 듣기, 읽기, 문법, 쓰기를 보는 반면 **Discussing&Grammar** 수업은 문법 시험 한 번, 말하기 시험 한 번으로 나뉩니다. 말하기 시험은 줌으로 진행되는데, 소회의실로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미리 제공하는 주제와 질문들에 대해 대화하고 있으면 교수님이 불시에 들어와 체크하는 방식입니다. 저는 그러지 못했지만 만약 말하기 시험을 보시게 된다면 열심히 발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B1** 정규강의와 **Discussing&Grammar** 강의를 모두 수강하고 **Unicert** 라는 별도의 시험까지 보게 되면 정식 독일어 **Unicert B1** 수료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별도의 시험을 치지 않아 수료증은 받지 못했습니다.

독일어를 독학하시고자 한다면 **Readle** 이라는 앱을 추천드립니다.

5. 기타 유용한 정보

독일의 교수님들은 대부분 메일에 늦게 답장하십니다. 메일에 답장이 바로 오지 않는다고 너무 조바심 갖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출국날이 다가오는데 시험 일정을 잡지 못한 상태로 메일 답장을 받지 못하면 불안해지니 기말고사에 관련한 사항은 학기 초반에 미리 교수님께 문의드리는 것을 추천합니다.

V. 생활

1. 가져가면 좋은 물품

소스류를 가져오시기를 강력 추천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코인육수나 어묵가루를 가져온 친구들이 가장 부러웠습니다. 또 비빔장 소스도 가져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설탕, 소금, 기름, 고추장, 된장 등은 독일에서도 많이 팔기 때문에 한국에서 좋아하셨던 특정 소스류를 가져오시면 좋습니다. 저는 참소스를 가져와 정말 잘 먹었습니다.

블럭국은 초반에는 유용하나 직접 요리를 하게 되면 손이 가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가져오지 않거나 가져오더라도 조금만 챙기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 누룽지를 가져오시면 요리하기 귀찮을 때 정말 간편하게 식사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보다 늦게 독일에 온 친구에게 추천해 그 친구가 가져왔는데, 만족스러운 후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부피도 많이 차지하지 않으니 가져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공대생이시라면 시험을 고려해 공학용 계산기를 꼭 챙겨주세요. 저는 까먹고 가져오지 못해 친구에게 급하게 빌렸습니다.

2. 현지 물가 수준

독일의 식재료 물가는 한국에 비해 현저히 싼 편입니다. 그러나 외식은 더 비싸기 때문에 대부분의 끼니를 직접 요리해 먹는 걸로 해결했습니다. 독일에는 다양한 마트들이 있는데, 마트별로 가격대가 다릅니다. **EDEKA>REWE>ALDI** 순으로 에데카가 가장 비싸고 알디가 가장 저렴합니다. 이외에서 카우플란드, **Lidl** 등의 마트들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Rewe** 가 가격과 야채 과일의 질을 따져봤을 때 가장 합리적이라고 여겨져 **rewe** 에 가장 자주 갔습니다. **Rewe** 앱을 깔면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으니 초반에 깔아 처음부터 적립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우리나라의 올리브영과 다이소를 합쳐놓은 듯한 상가로 **DM** 과 **ROSSMAN** 이 독일에 있습니다. 각종 화장품과 목욕용품, 청소용품, 영양제, 간식 등을 팝니다. 영양제가 정말 싸고 다양하니 새로 도전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특히 평소 수면에 문제가 있으셨던 분들에게 멜라토닌을 추천합니다. 한국에서는 판매되지 않는 성분이기 때문에 독일에 시도하시고 잘 맞으시면 한국에 사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ROSSMAN** 앱을 깔면 10% 할인되는 쿠폰을 상시 제공하니 꼭 앱을 깔고 매번 10% 할인받으시길 바랍니다.

3. 식사 및 편의시설 (식당, 의료, 은행, 교통, 통신 등)

다름슈타트에는 **Jin's House** 라는 마라탕 맛집과 **Ban Thai Restaurant** 라는 태국 식당 맛집이 있습니다. 추천합니다.

저는 **TK** 공보험을 엑스파트리오를 통해 들었는데, 치과에 갈 일이 생겨 혜택을 받았습니다. 독일은 치과도 전체는 아니더라도 공보험이 적용이 되니 치과에 갈 일이 갑자기 생겨도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듯 합니다.

은행은 N26 계좌를 만들어 슈페어콘토 계좌에서 생활비를 이체받아 사용했습니다.

독일에서 택시를 탈 때 주의해야 할 점은 길거리에서 택시를 잡으면 아주 비싸다는 점입니다. Uber 보다 보통 두배 정도의 가격이 나오기 때문에, 정말 급하신 게 아니라면 Uber 이나 Bolt 와 같은 택시 앱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핸드폰 개통은 ALDI 마트에서 파는 Alditalk 유심을 사 진행했습니다. 원래 폰에서 esim 을 사용했기에 한 핸드폰으로 원래 쓰던 유심과 독일 유심을 함께 사용할 수 있었는데, 원래 실물 유심을 사용하시던 분들은 독일에서 Vodafone 과 같은 esim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사를 이용하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4. 학교 및 여가 생활 (동아리, 여행 등)

학교에서 동아리는 아니지만 제공하는 필라테스 체육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수업료를 내고 참여할 수 있는 체육프로그램들을 TU Darmstadt 에서 아주 많이 제공하는데, 테니스와 같은 인기 강좌들은 금방 마감되니 시간에 맞춰 수강신청 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정말 다양한 나라와 도시들로 여행을 다닌 것 같습니다. 특히 독일에 교환학생을 왔다 보니 독일 내 여행을 많이 하려고 했는데, 이때 고속열차인 ICE 를 탈 일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Bahn Card25 이라는 사면 ICE 를 25% 할인해 주는 카드가 있는데, 금방 본전을 뽑으니 독일 내 여행을 많이 하실 계획이시라면 처음부터 사서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5. 안전 관련 유의사항

밤늦게 프랑크푸르트 중앙역 근처를 돌아다니지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름슈타트 중앙역은 개인적으로 괜찮았으나, 독일을 포함한 대부분의 유럽 국가의 큰 중앙역들은 치안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항상 치안이 어떤지 확인해보고 다니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VI.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마치는 소감

많은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성격과 가치관이 교환학생 하기 전과 크게 달라지진 않았지만, 앞으로 살아감에 있어 선택할 수 있는 길이 하나 더 늘어난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럽습니다.